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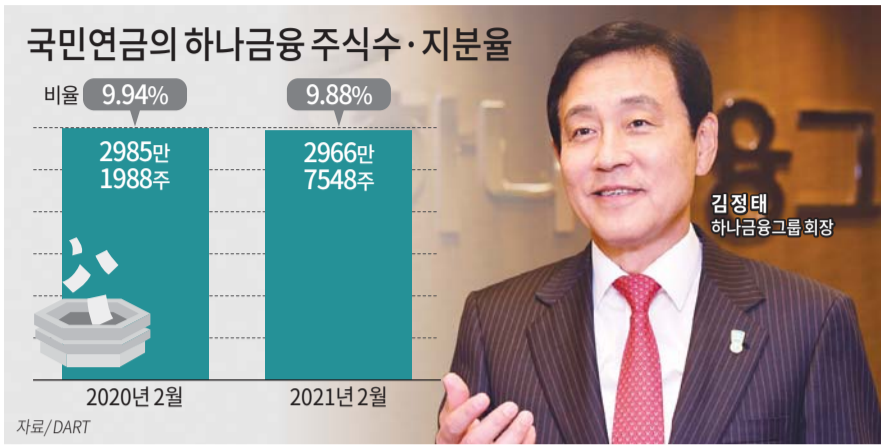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4연임 무게... 국민연금 선택에 쏠린 눈

조직안정 이끌 수 있는 연임 유력 최대주주 '국민연금' 의중 관심사 외국인 주주, ISS 권고 따를 가능성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직안정을 이끌 수 있는 김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달 이사회에서 김 회장의 연임이 확실 시 되는 만큼 외국인 주주들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의중이 관심사다.

16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자군(4명)에 이름을 올렸다. 후보군은 김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회장, 박진희 전 한국 씨티은행장이었다.

회추위는 이날 말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후보에 대해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통상 하나금융의 정기 주주총회는 3월 셋째주에 열린다. 정기주주총회 2주 전까지 신입회장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러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차기 회장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윤성복 회추위 위원장은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및 후보추천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 후보군을 확정했으며, 회추위는 최종 후보군 선정에 있어 하나금융의 조직 안정을

피하기 위한 후보들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 동안 후계자로 지목되어 온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법률 리스크가 발목을 잡아 조직안정을 꺾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 내부규범상 회장의 나이는 만 70세까지다. 올해 만 69세인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해 1년여간 조직을 안정화 시킨 뒤 차기 회장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요 관건은 이사회서 외국인 주주(67.20%)와 최대 단일주주인 국민연금공단(9.88%)의 의중이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해외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에 따를 확률이 높다. 앞서 지난 2018년 ISS는 김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실적이 개선되고 주주가치가 높아졌다는 점을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2조6372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3% 급증했다. 실적 개선으로 인해 ISS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연임에 대한 독립성 취약우려로 반대나 중립의견을

던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하나금융에 대한 투자목적은 이미 일반투자자로 바꾼 상태다. 일반투자자로 투자목적은 바꾸면 추가 배당요구 등 배당정책 변경과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반대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권은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더라도 안건들이 모두 통과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가 행사하는 영향력 또한 커지면서 무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사실상 주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 CEO를 바꾸는 것"이라며 "선임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주사 안전에 반대한 경우 자율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NH농협금융, 순익 1.7조... 이자이익 성장세

지난해 당기순익, 전년비 437억 감소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전 당기순익 2조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양호한 실적을 내놨다.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기준으로는 연간 당기순익이 2조원대를 유지했다.

농협금융은 16일 지난해 당기순익이 1조7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437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그룹과는 달리 농협금융이 농협법에 따라 농업·농촌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 4281억원을 감안한 당기순익은 2조353억원 규모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미래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산의 잠재적 부실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면서 당기순익이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룹의 핵심이익인 이자이익은 7조 9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었다. 순

(NH농협금융지주 실적) (단위:억원)

구분	전년동기 대비(누적)			전분기 대비(순증)		
	FY2020 (A)	FY2019 (B)	증감 (A-B)	2020년 4분기 (C)	2020년 3분기 (D)	증감 (C-D)
당기순이익	17,359	17,796	△437	2,751	5,505	△2,754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전	20,353	20,693	△340	3,499	6,255	△2,756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이익 기준 /NH농협금융지주

이자마진(NIM)은 1.65%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축소됐지만 대출 성장 및 저원가성 예금의 증가로 이자이익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수수료이익은 비대면거래 확대 및 증권위탁중개수수료 순증에 힘입어 전년 대비 39.7% 증가한 1조6265억원이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48%, 대손충당금적립률 140.39%다. 총자산은 483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2% 늘었다. 수익성 지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7.87%, 총자산순이익률(ROA) 0.44%다. 농업지원사업비 전 기준으로는 ROE 9.22%, RO

A 0.51%다.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37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4.4% 늘었지만 미래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선제적 추가 적립 등으로 신용손실 총당금 전입액이 2057억원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비은행 계열사 중 투자증권은 57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외에도 생명보험 612억원, 손해보험 463억원 등 개선된 실적을 나타냈다.

/안상미 기자 smahn1@

DB손해보험 워라벨 문화 선도 'DB챌린저스'

비대면 활동으로 자기개발 지원

DB손해보험이 워라벨 기업 문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DB손보는 임직원 대상으로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DB챌린저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금연펀드'와 '다이어트펀드'를 운영해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온 DB손보는 이번 'DB챌린저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활동을 비대면 활동으로 다양한 주제의 자기개발을 지원한다.

'DB챌린저스 프로그램'은 비대면 자기개발 플랫폼인 '챌린저스(커피화이트 큐브)' 애플리케이션과 제휴해 건강한 습관 정착을 통한 자기개발과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DB손보 임직원들은 매월 2~3주 단위의 기간을 정해 5~6개 챌린지의 달성 조건을 모바일로 인증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나간다. 운영방식은 '펀드형'과 '자기개발시간 부여형'으로 나뉜다.

'펀드(Fund)형'은 임직원들이 1만원

의 참가비로 신청하면 회사에서 1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목표 달성 시 추가로 상급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기개발시간 부여(Self-Development)형'은 목표 달성 시 회사에서 인정하는 학습시간 또는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챌린저 주제는 매월 다양하게 구성해 '운동, 생활습관, 다이어트 등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감정관리, 가족' 등으로 넓혀 워라벨을 도모하고 추후 DB손보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15일부터 '10층 계단 오르기', '올바른 분리수거 실천하기', '매주 1kg 감량하기', '하루 2번 셀프 칭찬하기', '경제 기사 읽기', '아이에게 책 읽어 주기' 등 6개의 테마를 임직원이 신청해 첫 번째 챌린지를 시작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다양성을 갖춘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기대와 워라벨 기업 문화 정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KB국민카드 개방형 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출시

'데이터루트', 누구나 분석 가능

KB국민카드가 빅데이터 사업 혁신과 시장 선도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온라인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데이터루트(Dataroot)'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플랫폼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나 카드 빅데이터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분석한다. 더불어 시각화한 보고서와 각종 부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데이터 접근성을 높였다.

데이터 추출과 가공,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정기적으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구독하는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 분석 보고서, 광고 서비스, 데이터 상품, 인사이트 보고서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번 플랫폼은 ▲인구통계정보, 가

맹점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과 지역을 분석해 트렌드 현황을 제공하는 '분석 솔루션' ▲비즈니스 이슈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셋과 인사이트 리포트 조회가 가능한 '오픈랩' ▲빅데이터와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해 타겟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광고 서비스' 등 3개 부문으로 구성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6일 "끊임없는 데이터 서비스 고도화와 차별화된 서비스 발굴 노력을 통해 플랫폼이 기업중간 데이터 융합과 연결은 물론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는 빅데이터 혁신의 허브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신한銀, 어린이 금융교육 '랜선 은행탐험'

화폐의 개념·발달과정 등

신한은행은 겨울방학을 맞아 앞으로 2주간 어린이 대상 온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신한은행 어린이 랜선 은행탐험'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체험학습, 현장방문 등의 대면교육이 어려워진 어린이들을 위해 1월 중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기획했다.

랜선 은행탐험 콘텐츠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화폐의 개념과 발달과정

▲금융의 의미 ▲금융기관 이야기 등으로 구성됐다. 또 실시간 비대면 금융교육을 통해 강사와 어린이가 상호 소통이 가능하며 신한은행 캐릭터 솔(SOL)과 함께하는 체험형 학습, OX퀴즈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세뱃돈 관리에 대한 주제와 평소 '용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을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